

# 여순사건 기념공원 한센인촌 도성마을에 조성

### 여수시, 용이·접근·연계·역사성 고려...2026년 착공 목표 피해 지역 아우르고 지자체 위치 안배...1417억 국비 요구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가운데 여수시가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치유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계획안'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는 21일 때 맞춰 여순사건 유족과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오랜 준비와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 용이성, 접근성, 연계성, 역사성을 모두 고려해 여수와 순천의 접경지인 율촌면 신흥리 도성마을을 최종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순사건 기념 조성 연구용역을 착수해 후보지 입지 평가, 대국민 설문조사, 유족회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한센인촌으로 알려진 율촌 도성마을과 사건이 발생한 신월동 등 9개 후보지를 평가했다. 쉽게 개발이 가능한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여순사건 피해지역과 접근성 등은 어떤지, 여순사건과 연

계성이 있는지,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는지 등을 연구해 후보지가 결정됐다.

최종 후보지로 지목된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부각됐다.

또 인근에 공항이 위치해 수도권 등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매우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노후 폐 축사의 위생과 경관성 문제를 적극 해결해 행정 사각지대로 그동안 소외돼 왔던 도성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비롯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여순사건의 가치 실현과도 일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념공원은 총 부지 34만㎡에 조성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기념관은 연면적 6000㎡, 1층 규모로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주제를 시간의 흐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추모관은 연면적 3000㎡,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야외에는 추모공원과 추모 마당, 추모의 길이 구상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전후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감안했다.

총사업비 중 용지 보상비를 제외한 경제성 분석



여수시 율촌면 신흥리 도성마을에 조성 예정인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감도. <여수시 제공>

결과 편익 및 비용 비율은 1.0486으로 경제성 분석 기준인 '1' 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부문이 124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64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647명으로 추산됐다.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 총사업비로 14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관련 기념사업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2024년까지 예비 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 2026년 기념공원 실시와 착공을 목표로 공원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농업용 드론 실증시험 모습.

## 고흥군, 드론 핵심 부품 국산화 선두주자로

전남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고흥군이 드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 2022년도 제1차 연구개발기획사업 가운데 고흥군이 사·군 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고흥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3000만원을 받게 됐다.

고흥군은 드론 부품 국산화 모델 개발을 위해 2월부터 사·군 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8개월간 연구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 부품 국산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내년 국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

다.

드론 산업은 정부의 육성 노력에 힘입어 2016년 704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4595억원으로 6.5배로 성장하였으나, 공공과 민수 분야 국산 드론의 부품 국산화율은 4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국내 드론기업 업체들이 중국에서 드론 부품을 수입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고려할 때 부품 국산화는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동력 전달·전기식작동·통신 등 드론핵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국산화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순천시 흑두루미 국제사진 공모전 대상작, 유형전의 '순천만 갯벌위의 환상'.

## 흑두루미, 평화의 하늘길 연결하다

순천시, 흑두루미 사진 수상작 전시

순천시가 24일부터 3월 말까지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사진전시회를 문화건강센터와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흑두루미 사진 공모전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경이 없는 하늘길을 따라 이동하는 흑두루미를 평화 메신저로 한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흑두루미, 평화의 하늘길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총 6개국 131명이 참가해 전 세계 흑두루미와 그 서식지의 풍경을 담은 사진작품 360점이 출품됐다.

전시회에는 공모전 수상자 49명의 사진작품이

전시된다.

24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순천 문화건강센터, 2월 7일부터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에서 떠나는 3월 말까지는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사진을 통해 흑두루미를 만나볼 수 있다.

순천만보전과 관계자는 "흑두루미는 순천시의 시조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새"라며 "유네스코 도시 순천에서 보내는 평화의 흑두루미 편지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전시회는 순천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흑두루미 주요 서식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백운산 고로쇠 출하 3월 20일까지 판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출하를 시작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채취를 시작해 오는 3월 20일까지 판매한다.

가격은 1.5ℓ×12개 6만원, 4.5ℓ×4개 6만원, 18ℓ×1개 5만 5000원, 1.5ℓ×6개 3만 4000원, 4.5ℓ×2개 3만 4000원이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했다.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특히,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고로쇠 약수철이면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 유지를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340여 농가가 93만ℓ의 고로쇠를 채취해 3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광양 고로쇠 채취 농가들은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수액 용기에 정제일자 표기, 지리적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백운산 고로쇠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고로쇠 경쟁력을 높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사랑상품권 10%까지 할인 구매한도 월100만원으로 확대

보성군이 24일부터 지역화폐인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을 10%까지 할인한다. 별도 통지시까지 할인되는 이번 상품권은 구매 한도도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군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 6%,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을 적용했으며 지류와 카드 합산으로 월 70만원 구매 한도를 제공해 왔다.

이번 10% 할인을 적용, 구매한도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보성사랑상품권 824억 원(지류 727억원, 카드 97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중 782억원(지류형 714억원, 카드형은 68억원)을 판매했다.

상품권 구매는 NH농협은행 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지정금융기관 32곳에서 살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운창호변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